

## 제52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마치고

제52회 사법시험 2차 수험생

김○○

### I. 들어가며

이번에 4시로 2차 시험을 본 수험생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경험담이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씁니다(이하 경어 생략).

### II. 시험 전

4순환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 3순환을 마친 후, 4-2로 계획을 세워 역순으로 각 과목을 정리했다. 제시, 삼시를 제대로 준비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은 처음 해 보는 것과 다름없었다. 계획과 달리 4일, 2일 동안 한 과목을 전부 보기가 어려웠고 특히 후사법은 볼수록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기본 삼법을 줄여 후사법을 며칠 더 보았다. 회독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지만, 원래 한 번 읽을 때 꼼꼼히 보고 회독수가 많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름의 위안으로 삼았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 사례집을 볼 과목은 교과서를 그 전에 1회독 하고, 교과서로 시험 전날 정리할 과목은 사례집을 봤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 이론과 사례풀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시험은 고려대에서 보았다. 책상을 두 사람이 같이 쓴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쾌적한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고려대를 선택했다.

### III. 첫 날

헌법과 행정법을 시험 전 4일부터 행정법 2일 헌법 1일 시험 전날에 행정법과 헌법을 모두 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시험 전 날 행정법을 늦게까지 보는 바람에 헌법을 밤 9시에 시작하게 되었고, 매우 불안한 마음에 공부도 잘 되지 않았다. 한 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했는데도 교재를 전부 읽

지는 못하고 시험장에 가게 되었다. 버스 안에서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빠르게 교재를 훑었다.

어느 강사가 시험 보기 전에는 끝까지 교재를 보는 것 보다는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었는데, 막상 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 끝까지 손에서 책을 놓기가 어려웠다. 너무 긴장이 되어서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시험 시작 전 5분 동안은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 1. 헌법

헌법 문제를 받고 1문에서 2문까지 문제를 읽었다.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기본권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문제되는 기본권들을 뽑아내고 사례의 포섭을 잘 해야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당황이 되었다. 잠깐 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빈 답안지를 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대충이라도 목차를 잡았다. 그간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을 하면서, 생각이 나지 않고 명할 때는 오래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차분히 맘을 가라앉히고 답안을 썼고 그러다 보니 배점 분량을 채울 수 있었다.

모의고사를 본 지 오래 되어서 시간 조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목차 잡는 시간을 정해두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문제의 사안포섭을 하지 못하고 답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 2. 행정법

행정법 문제들은 길이가 짧았고, 각론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토지수용절차나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관련 쟁점들은 거의 중요하다고 거론되어 오던 논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답안을 채우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잘 아는 부분을 더욱 잘 쓰고 싶은 욕심에 앞 쪽 문제들을 쓰는 데 시간을 초과해서 써 버려서 영조물책임과 관련된 문제에서 피고적격과 같은 논점들을 쓰지 못한 채 답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첫 날에는 시간 조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에 미흡하여 쓸 수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답안을 제출한 것이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첫 날부터 기운을 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돌아왔다.

## IV. 둘째날

돌아와서 두 시간 정도 자고 공부를 시작했다. 시험 전부터 둘째 날이 가장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책을 펴 보니 모르는 학설과 머리에 정리되지 않은 판례가 많아 당황이 되었다. 민사소송법을 먼저 보았는데, 점심시간에 볼 부분을 남겨 놓았는데도 새벽 두시가 되어서야 상법을 보게 되었다.

상법은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부터 보았는데 그러다 보니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리가 멍해서 30분 정도 눈을 붙였다.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한 4시쯤. 잠깐이라도 잠을 자서인지 회사법 부분은 다 보고 시험장에 갈 수 있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어음·수표와 상법 총론을 보고 보험법은 보지 못한 채 상법 시험이 시작되었다.

### 1. 상법

보험법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2문의 2에 보험법의 청구권대위가 나왔다. 보험법을 잘 써 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더 잘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고, 당황한 상태에서 회사법 문제를 보니 논점들이 한 번에 생각나지 않았다. 문제를 다시 천천히 읽어본 후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지만, 논점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써서 영업양도나 상호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관련 목차를 쓰지 못하고 쟁점 위주로 쓸 수밖에 없었고, 보험법 문제도 사안 포섭을 하지 못한 채 답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1문에서 매우 길고 복잡한 사안이 출제되어 적잖이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문제를 읽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는 동안 여기저기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와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 차분하게 문제를 읽었다.

입체적인 답안 구성을 하고 싶었지만 쓰는 시간을 계산해 볼 때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느라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보이는 논점 위주로 완성된 답안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답안을 작성했다.

2문의 1은 조합과 관련된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 방식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고, 2문의 2도 처음에는 논점을 찾지 못했지만 변론주의 관련 문제라서 답안 작성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 V. 셋째날

셋째 날은 둘째 날 보다는 양이 적었지만 평소에 형사소송법에 자신이 없

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자고 공부를 시작했다. 책을 앞부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12시가 넘도록 책을 반도 보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공부 가 되지 않았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들었는데 그조차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한 시간 반 정도를 자고 증거부분부터 보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모두 보고 형법을 시작했다. 두 시간 동안 총론 부분을 빠르게 본 후 시험장에 갔다. 시험장에서 형법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론 부분의 중요한 논점들을 모두 보았다.

### 1. 형법

1문의 지문이 길었지만 형법 문제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읽었는데 막상 답안을 쓰려니 쟁점이 잘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를 쓰다 말고 답안지를 바꾸게 되었다. 답안지를 바꾸어서 시간이 부족할 것을 생각해 시간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고 답안을 작성했다.

2문의 1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였고, 2문의 2는 상습도박과 사기도박에 관련된 문제였다. 사기도박과 관련된 문제는 판례를 반영한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 판례를 알지 못했고, 배점에 대한 논점도 모두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답안을 제출했다.

시간 배분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2문의 2와 관련된 논점들은 생각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 2. 형사소송법

1문에서는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문제와 영장 없는 압수 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계산하는 문제를 너무 오랜만에 풀어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리고 배점에 대한 논점의 배치를 잘 못 한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2문의 1의 1,2문은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과 관련한 증명의 정도 등을 묻는 문제였는데, 정확히 어떤 논점을 써야할 지 헷갈려서 당황이 되었다. 2문의 1의 3번 문제와 2문의 2는 예상문제였기 때문에 수월하게 논점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생각만큼 잘 써지지 않아서 약간의 좌절감이 들었다.

## VI. 넷째날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헤이해져서 잠을 한 시간 반 정도 잔 후 친구와 한 시간이나 이야기를 한 후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민

법의 양이 방대한 것을 모르지 않는데도 시간을 낭비한 것에 자괴감이 들었고 공부하기가 싫어질 지경이었다.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내가 싫었고 민법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생각만큼 빠르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민법총칙만 세 시간을 붙들고 있었다. 밤이 되자 마음이 급격히 무너졌지만 채권법까지만 보고 시험장에 가서 물권법과 친족 상속법을 보면 된다고 나를 달래며 공부를 했다.

그 동안의 피로가 누적되어서 집중이 되지 않았고, 중간에 한 시간 반 정도 잠을 잤다. 채권각론을 다 보지 못하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도 다른 날과는 달리 자꾸 잠이 와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도 너무 잠이 왔고 피로회복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깨지 않아서, 멍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결국 물권법까지밖에 보지 못하고 시험이 시작되었다.

### 1. 민법 1교시

1문에서 친족법과 상속법 관련 문제가 나왔다. 마지막에 보지 못한 부분이어서 답안을 쓰기가 어려웠지만, 조문을 찾고 모의고사 때 썼던 것을 떠올리며 답안을 작성했다.

2문의 1은 문제를 읽어 봐도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작은 문제별로 논점의 정리 없이 답안을 써 내려갔다. 문제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쓰는 것이 백지를 내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무작정 답안을 썼다. 2문의 2 역시 정확한 답을 생각해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정확한 논점을 찾아 답안을 구성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안의 시간 흐름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답안을 썼다.

### 2. 민법 2교시

1교시에 물권법 관련 논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점심시간에는 물권법에서 문제되는 쟁점 위주로 책을 보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피로가 누적되어서인지 책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피로회복제 때문에 잠도 오지 않으면서 머리가 멍한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2교시에는 논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쓰기 수월한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하나라도 더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붙잡고 있었다.

2교시 시험이 시작되고 문제를 펼친 순간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3문은 1시간 안에 목차정리와 답안작성을 끝내야 하고, 그러려면 10분 안에는 목차를

잡고 쓰기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를 읽어보니 10분 안에 목차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데다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아서 정말 난감했다.

논점의 정리에 문제되는 논점들을 모두 담아서 써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점을 정리하지 못하고 문제에 바로 답을 하는 식의 답안을 작성했다. 문제를 풀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빠뜨린 논점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지만 그것을 고려해 답안을 작성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3일째까지는 크게 실수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고 다음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쓴 답안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법 시험을 보고 나서는 매우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 VII. 시험을 마치며

시험 보는 나흘을 생각하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매일이 고되고 마음도 힘들겠지만 하루는 길고 일 년은 짧다. 시험 보는 날 까지도 정말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인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 너무 많이 외우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 중요한 학설과 간단한 논거, 판례 정도를 압축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책은 이해하면서 보되 외울 부분을 따로 준비하는 방법도 유용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의고사도 빠지지 않고 보면 시간 조절이나 중요한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 다음 날 시험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시험이 끝나 있었다. 시험이 끝난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제출한 답안지들이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시험 때문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축구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이나 감사했다. 나흘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내 꿈을 위해 애쓰는 나 자신이 대견했고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했다. 최종 합격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